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들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통합교육의 밑거름이 되어 학생들이 더불어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I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일반 학교에서 또래 학생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의 유형에는 일반학급에 완전히 통합되어 공부하는 완전 통합, 일부 교과를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시간제 통합이 있습니다.

II 통합교육의 효과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됨 •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됨 • 장애학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해 등의 편견을 줄일 수 있음 • 장애로 인한 제한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장애학생의 모습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음 •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됨 •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경험을 제공받음 • 비장애학생과의 동등한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분리교육에서 오는 장애의 낙인과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연령에 맞는 교육 경험의 폭이 넓어짐

III 장애 학생의 인권

▶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장애인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함께 사회적 인 요소가 더해져서 생겨난 것입니다. 각각의 장애에 알맞은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더 이상 장애는 장애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

Q. 장애가 있거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눈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둘째,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셋째, 휠체어를 타거나 도움을 받아 걷는다고 해서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아 주세요.

넷째,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면 생각 중이거나 해야 할 일이 있어 바쁜 것이니 잠시 뒤 다시 물어보세요.

다섯째, 장애가 있다고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IV 장애에 대한 이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가 있는 없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생각해 보는 날로 기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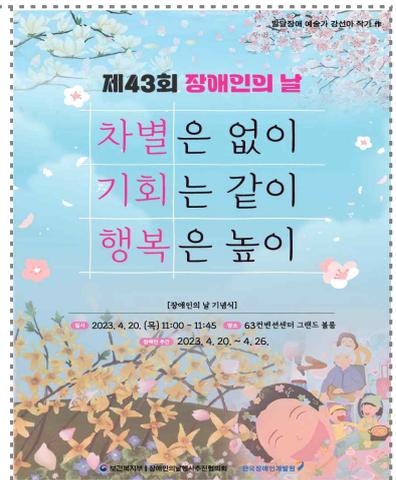
장애인의 날 유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으로 인해 아주 많은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생겼고, UN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장애인들이 한 번 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 날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하루만이라도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43회 장애인의 날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2023. 4. 20.

고 창 고 등 학 교 장

